

합적인 EU회원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U회원국의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장기적인 보존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자문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고 디지털 도서관을 유럽전역에 걸쳐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중이다.

참고자료:

- [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i2010: Digital libraries”
(www.europa.eu.int/eur-lex/lex/LexUriServ/site/en/com/2005/com2005_0465en01.pdf)
- [2] “Response from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to th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i2010:Digital Libraries”, 2006-1-31,
(http://www.culture.gov.uk/global/publications/archive_2006/responses_i2010.htm?properties=archive%5F2006%2C%2Fcreative%5Findustries%2FQuickLinks%2Fpublications%2Fdefault%2C&month=)
- [3] 박윤홍, “EU집행위, IT성장위한 i2010 수립”, 2005-6, KOTRA,
(http://www.kotra.or.kr/main/trade/cmdt/view_n.jsp?lsmcd=0030001&inpt_no=1204115)
- [4] 전지현, “EU의 i2010 이니셔티브”, 2005-3-16,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homepage/main/data/issue.nsf/Byissue2003V/F20C47379FC92F86C9256FC80027F32A?opendocument>)
- [5] <http://www.dmeurope.com> 외 각종 웹사이트

개성공업지구 통신 공급 현황

국제협력연구실 주임연구원 홍현기
(T. 570-4074, hkhong9475@kisdi.re.kr)

1. 개요

개성공업지구는 개성지역을 남한 및 외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

로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경제특구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이산(주)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쳐, 2003년 6월에 공식 착공되었다.

개성공업지구는 2,000만평 규모로 시범공단과 본공단으로 구분하고 2011년 까지 약 500억 불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림 1) 개성공업지구 개발 계획도



자료: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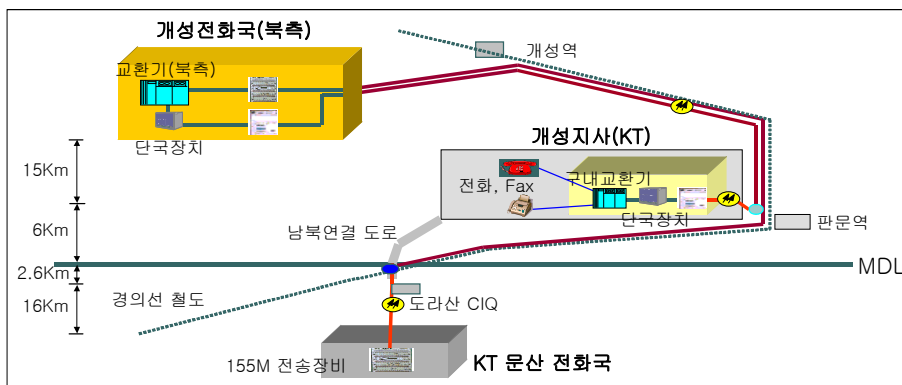
2. 통신 공급 현황

남북은 개성공업지구내 통신 공급을 위해 2002년 12월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통신 및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KT와 조선체신회사간에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2004. 12) 및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부속합의서”(2005. 3)가 체결되어 통신 공급을 위한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요금을 분당 0.4달러로 합의하고 번호체계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전화를 걸 경우 “089-국내번호”를 사용하고 남한에서 개성공업지구로 전화를 걸 경우는 “001-8585-XXXX”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에서 전화 설치시 설치비는 회선당 100달러, 기본료는 월 10달러, 개성공단 내의 통화는 3분당 0.03달러로 결정하였다. 이

후 2005년 12월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시범공단간의 유선전화 300회선이 연결 및 개통됨으로써 분단 이후 단절된 민간 직접연결전화가 재개통되었다.

개성공업지구의 통신망 구축은 남한의 기술 및 장비를 반입하여 설계, 시공하는 사업방식으로 공단 조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시범공단의 경우, 개성과 판문점 간의 광전송로를 활용하여 입주기업들에 개성공단과 남한지역 간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개성공업지구 시범공단 통신망 구성도



자료: KT

개성공업지구의 통신공급을 위한 통신장비 반출은 IT장비의 대북반출을 규제함으로써 남북 IT교류협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외 규제의 범위 안에서 남북 IT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좋은 사례가 되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는 조성이 완료될 경우 약 120,000회선으로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공단 조성과 맞추어 여타 기반시설 구축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을 위해 본 공단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승인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화, 팩스 이외에 인터넷, 이동전화 등의 통신서비스가 제공되어 입주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2]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http://www.kidmac.com>)
- [3] 현대아산 (<http://www.hyundai-asan.com>)
- [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